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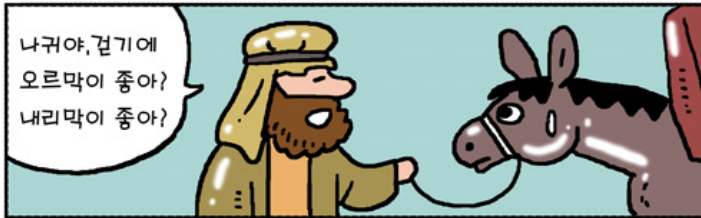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외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외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그대가 지고 가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 1독서] 이사 43, 16-21

[화답송] 시편 126(125), 1-2, 4, 2, 2, 3-4-5, 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필리 3, 8-14

[복음 환호송] 요엘 2, 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복음] 요한 8, 1-11

성가	8시 미사	입당 121	봉헌 511	성체 163	파견 124
	11시 미사	입당 116	봉헌 123 217	성체 161 197	파견 28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5주일(3월 17일)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4일)		성삼일(3월28,29,30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이바오로(명국)	황테레사(혜정)	허세실리아	조레지나	김안토니오(휘)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이레이몬드	조바오로(병국)	1독서:최분도(환준)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이골롬바(정연)	임루카(승원)	백헬레나(승화)	이베로니카	조마리아(상희)	3독서:김글라라(순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5독서:김안젤라(영선)
수난복음			기아티노(희)	이레이모드(차유)	그미키에	7독서:기안드레아(찬곤)	카(승원)

오늘의 강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살다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처지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는데, 한 무리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한 8,3-5)라고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자신들의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질문에는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요한8,6)라고 그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간교한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꼼수는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고발할 구실을 찾은 셈이고,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니, 많은 군중들 앞에서 툭툭히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이든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답변을 재촉하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8,7)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돌을 던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나 다음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깨지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 자신도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다음에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8,11)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그 여자의 죄를 두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와 어둠을 모두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이사43,18-19)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려야**”(필리3,13)합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주일학교 소식

1. 3월 17일(오늘)

- 주일학교 11시
- 영어 고해성사 11시(Fr. Arjen Tete, SJ)
- 영어미사 12시 반(Fr. Arjen Tete, SJ)

2. 교사 소개 : Eric Cho선생님(5th/6th grade)

My name is Eric Cho and along with Andrew Choi, I am teaching 5th and 6th graders this year. I am 21 years old and currently working the U.S. Army as a nurse. I have no prior experience for teaching Sunday school, but I've always had a passion for teaching students about the Catholic religion. This is a learning experience for me, as well as the students. I'm glad that I have this opportunity to share the knowledge that I have, so that they may get closer to god as I did when I was little. Going to church as a Sunday school student wa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I had as a child, and I wish for this to be the same for your children. I am hoping to give back to this wonderful community that I've grown up in, and spread the good news to the younger generation. I will strive to become more knowledgeable with Catholicism, and we'll have a great year!

3. 부활절 맞이 주일학교 행사

- 3/30(토요일) 12시
- 대상 : 주일학교 전 학생
- 12시 : 학부모회에서 점심 제공
- 1시부터 : egg hunt, Easter egg장식, 기타 게임

4. 영어미사 독서자 모집(1~8학년)

-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은 주일학교 교사 혹은 청소년 부장에게 해주십시오.

5. 교사/보조 교사 모집(2013년 가을학기)

- 모집 대상 : 학부모님, 대학/대학원 생(비영어권)
- 초등학교 저학년 반(Pre-k 반, Kinder-1학년 반) : 우선 모집 0명
- 청소년부장에게 연락주세요. sjbaek(at)gmail.com

6. 부활절 합동미사

- 부활절(3/31)은 합동미사이며
- 주일학교는 한 주 쉽니다.

생명의 말씀

‘돌직구’ 를 날리신 예수님!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자신의 죄를 살피고 고해성사를 통해 부활 대축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이야기는 과거의 죄를 깨운고 처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아주 편리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마르 7,9-13 참조)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루카 18,11)라고 어처구니없이 주절대며 기도합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눈에 든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기막힌 율가미를 사용하여 예수님까지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의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명백한 현행범을 그냥 용서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팔매질에 대한 열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시면서 숙고의 시간을 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루카 6,37)

아니면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 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예레 17,13)라고 쓰셨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이웃을 단죄하는 일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메마른 인간들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끈질기게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직구’ 가 되어 진짜 돌을 들고 있던 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토록 확신에 찬 행동을 보이던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간음한 여인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돌’ 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율법의 요구와 그 적용만이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돌직구’ 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루카8,11)는 말씀으로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자만과 배타의 '초막'을 걷어 내고

가난한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자를 알아뵈옵게 하소서.

글_성무일도 청월기도 참조/그림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루르드의 천사들

허리를 고치고 난 후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걸다 보면 오른쪽 다리가 없는 듯해서 털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다리가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잠시 앉아있다 보면 다시 다리가 생겨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걷고, 또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가보고 수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루르드 성수만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바르는 것으로는 어렵고 성수를 머리에 부어야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사님께 연락을 해서 루르드에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마침 파리에서 루르드로 갈 신부님들과 동행할 어머니들을 소개받고 동생을 지팡이 삼아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도착한 루르드에서 제가 본 것은, 루르드 성수의 기적 이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드는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루르드를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의 경건한 모습은 병을 고치러 가는 길에 놀기도 하자는 저의 철없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눈이 아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금발의 어머니는 성수를 받아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아들의 눈을 씻어 주었습니다.

온몸이 피부병에 걸린 은발의 할머니는 동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울지도 않고 고쳐달라고 애걸하지도 않는 순례객들의 모습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거의 모든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전신마비 환자가 탄 커다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반신마비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그 사람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적...

거스름돈은 알아서 가져가라는 가게의 공개된 거스름돈 바구니와 무방비 상태의 성물 무인판매대의 동전은 집시들조차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곳,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돌아도 질서정연한 곳, 넓은 광장에 가득 찬 소리 없는 기도의 울림에 가슴이 벅차올라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곳이 바로 루르드입니다.

물을 빼는 구멍조차 없는 옥조에 별별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몸을 담그고 가도 그 누구도 감염되지 않는 곳, 그리하여 광장의 성모상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곳에서 저는 몸의 치유 전에 이미 마음의 치유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 루르드에서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겠지요.

황미나 아가다
만화가

머무름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예레 1:5)

모든 사람의 생명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항

가톨릭전례

전대사란 무엇인가?

전대사가 뭐야? 세례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배웠는데 전대사는 왜 필요하지? 그리고 고해성사로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전대사는 왜 필요하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신앙의 해를 선포하였고, 이 기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신자들이 전대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대사가 무엇인지 모르니 전대사를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대사란 무엇인가? 대사(大赦)의 일종인 전대사는 대사 중에서도 죄에 따른 잠벌(暫罰)에서 전부 풀리는 '전면대사'를 말한다. 가톨릭 교리서는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항).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고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혼에 새겨진 '아직도 남은' 잠벌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사람이 회개를 통해 죄는 뉘우쳤지만,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돈이 생기면 돌려주겠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 하지만, 정작 값을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는다. 죄도 마찬가지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영벌은 사함 받지만 잠벌은 여전히 남는다. 이 잠벌은 연옥에서의 고통을 통해 갚아야 한다. 전대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잠벌을 한꺼번에 면제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우선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교회에서 파문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전 996조).

그 일반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다. 우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배제하고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해야 한다. 또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등 조건을 채워야 한다. 신앙의 해와 같은 특별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때그때 교회

가 정한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순례 형식으로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주교좌 성당,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한 거룩한 곳,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 를 위하여 정한 날들(예를 들어, 주님의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의 대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성찬례 거행이나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3)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세례소 또는 자신이 세례성사를 받은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교령은 '신앙의 해' 에만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재가로 신앙의 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오클랜드교구: 4개의 전대사 지정 성당)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granting of a plenary)를 받을 수 있다.

* 오클랜드교구의 부르넛 대주교는 4곳의 전대사 지정성당을 정하였다.

- 1. The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2121 Harrison St. Oakland)
- 2. Mission San Jose, (43148 Mission Blvd, Fremont)
- 3. St. Joseph Basilica (1109 Chestnut St, Alameda)
- 4. St. Francis of Assisi.(860 Oak Grove Road, Concord)

가톨릭신문 2008.02.29. & The Catholic Voice

날짜	지향	봉헌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3월 17일 주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연 이마르코(재상)	익명	미사참석인원	97	213	47	357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헌금	\$543	\$1,298	\$43.57	\$1,884.57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 교무금 > \$2,835				
	연 정아네스	가족	정기환(3-4) 김세록(1-3) 조기상(1-4) 남금지(3)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유춘성(2) 유경돈(2) 송인환(1-2) 이건호(1-4)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이완수(3-4) 전완수(1-2) 김정복(3) 김영자(3)				
	연 서라이문도	익명	이순열(3) 육승주(3) 송분학(3) 박영실(3-4)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신현규(1-4) 박영자(3-4) 이선희(3) 김승우(2-3)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 성소후원금 > \$190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	김정복(3) 송분학(3) 박영실(3-4) 이선희(3)				
	연 Donald Frank	김젬마	김종성(1-12/2012)				
	연 송정숙	강그레이스	< Bishop's Appeal > \$50				
	연 앙카 파우스코프	윤루카/루시아	이선희(3) 박영실(3-4)				
	생 Tom/Jimmy/Linda	전데레사	< 부활초/꽃 봉헌 >				
	생 Brunk Yim	조우송(요안나)	구혜순 \$50 전숙희 \$50 강신옥 \$100 황안나 \$50				
	생 서데레사	익명	< 2차 헌금 > \$857				
3월 19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이요한(희걸)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이요셉(병렬) 생일	김엘리사벳					
	생 유요셉 가족	성루카/우솔라					
	생 이요셉(건용)	육아오스딩/아가다					
3월 20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연 권알로이시오곤자가	김카타리나					
3월 21일 목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3월 22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서라이문도	익명					
	연 김도마	김카타리나					
	연 이요한	김카타리나					
	연 정다니엘	김카타리나					
3월 23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문요셉(정범)	가족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새로 오신 분 ☺☺☺☺

* 버클리
 권보미 엘리사벳 가정 ☎ 510-717-8849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앞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사순절 전례
사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기간 동안 매 미사 30분전에 보는 모든 성사는 판공 성사입니다.

◆ 영어 판공성사
대상 : 주일학교 학생, 교사, 영어권 신자
3월 17일(오늘) 11시~12시 교육관 103호

◆ 부활봉성체
일시 : 3월 21일(목) 오후 2시(사무실로 신청)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3월 28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금
* 수난감실 조배(각 구역별)

각 구역별 수난감실 조배시간			
밤 10-11시	뜨락회	오전 5-6시	4구역
밤 11-12시	2구역	오전 6-7시	3구역
밤 12- 1시	8구역	오전 7-8시	10구역
밤 1 - 2시	1구역	오전 8-9시	9구역
밤 2 - 3시	버클리	오전 9-10시	7구역
밤 3 - 4시	오클랜드	오전 10-11시	샌리엔드로
밤 4 - 5시	6구역		

* 3월 29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성지복구를 위한 연금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3월 30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부활성야헌금)
* 3월 31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 11시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주일학교 합동미사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부활맞이 대청소 : 3월 24일 교중미사 후 각 구역별로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평협회의 : 3월 1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도회의 : 3월 24일(토) 교중미사 후 107호실

3월 구역모임 **지에서 15-16장**

1 구역	3월23일(토) 6시	이인학 시몬 맥
샌리엔드로	3월23일(토) 6시	성태성 루카 맥
7-1 구역	3월23일(토) 2시	파운더스룸
8-1 구역	3월24일(일) 2시	교육관 106호실
9 구역	3월23일(토) 6시	강길준 도밍고 맥
10 구역	3월23일(토) 6시	한치용 요셉 맥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3월 24일 종식 후 성당
대상 : 레지오 단원

◆ 재속프란치스코 모임 : 3월 23일(토) 12시반 106호실

◆ 사순피정 강의 CD 신청 및 신앙의 해 특강 CD 신청
* 사순피정 원음 버전 3장 - \$15, MP3 버전 1장 - \$10
* 신앙의 해 특강(세계 교회사)을 본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CD(2장)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0)
접수 : 친교실 및 사무실
연락처 : 영성부장 707-696-7743

◆ 가톨릭교회 교리서 통독반 모집
시작 : 5월부터
신청 : 3월 24일까지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연도 안내
3월 24일 교중미사 후 최취종 베드로 형제님의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오클랜드 교구 소속 가톨릭 장례 및 묘지서비스 안내
성김대건 묘역을 헤이워드 Holy Sepulchre Cemetery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0일간 할인 분량을 합니다. 미사 후 설명회가 있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3월 17일(일) : 한국어 SAT 모의고사
* 3월 23일(토) : 교내 구연동화 대회, 교사연수
* 3월 30일(토) : 휴교(부활절)